

한 · 중 · 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1999년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이후 3국 협력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협력 사업들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3국 협력에 관한 “액션플랜”이 작성되었고, 이는 “3국협력 공동선언(2003)”, “3국협력 행동전략(2004)” 및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2007)시 3국 정상간 합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액션플랜의 목적은 다양한 분야에서 3국간 협력사업들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 협력사업별 추진현황은 매년 ‘3국협력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통해 점검된다. 액션플랜은 2-3년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교대로 작성하기로 한다.

I. 정치 분야 : 정치 영역에 있어서 제도화와 교류

1.1 한 · 중 · 일 정상회의

다른 다자회의와는 별도로 2008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중국이 2009년, 한국이 2010년 각각 제2차, 제3차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정상회의 개최는 3국협력을 진전시키고, 3국간 대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중·일은 협의를 통해 아세안+3 계기 3국 정상회의의 지속적 개최 방안도 추구해 나가기로 한다.

1.2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3국내 별도 외교장관회의 개최의 목적은 3국 외교장관이 3국간 협력 증진에 관하여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정책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한국, 2008년 일본에서 각각 제1차, 제2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제3차 회의는 중국에서 2009년 개최하기로 한다.

또한 한·중·일은 협의를 통해 3국 외교장관간 3자위원회의 지속적 개최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1.3 한·중·일 고위급회의 등

한·중·일 고위급회의는 지역 정세 및 국제 문제에 관한 전략적 의견 교환을 촉진하며, 3국협력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개최된다.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준비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여타 국장급 이하 실무협의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1.4 3국협력 사이버사무국

‘사이버사무국’을 개설함으로써 3국간 분야별 협력사업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분야를 독려하며, 사업 중복을 피함으로써 3국협력 증진을 꾀한다.

‘사이버사무국’의 정식 명칭은 ‘TCCS(Trilateral Cooperation Cyber-Secretariat)’로 2009년에 개설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3국 정상회의 등 각종 회의 및 협의체의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3국은 각각 TCCS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들 담당자는 3국간 협력사업 관련 자료를 갱신하며, TCCS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담당자와 연락한다. 3국 담당자는 TCCS 운영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II. 경제 분야 : 무역, 투자, 금융, 에너지, 물류 등

2.1 3국 FTA 공동연구

2003년부터 시작된 FTA 공동연구는 2008년에 마무리되고 2009년부터는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일본 무역진흥회(JETRO)가 주체가 되어 더 심화된 내용의 연구가 추진된다.

2.2 한·중·일 투자협정

3국은 투자의 촉진·활성화·보호를 위한 3국 협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협상을 가속화 한다.

2.3 비즈니스 환경

3국은 비즈니스 환경 현황을 설명하고, 3국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취해야 할 필요조치를 망라한 “액션 아젠다”를 공표하였다. 3국은 동 액션 아젠다를 이행하고, 갱신하기로 한다.

2.4 3국 에너지 협력

3국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고, 2003년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지역 및 세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2.5 물류협력 증진

3국은 동아시아에서의 효율적이고 막힘없는 국제물류 실현을 통하여 3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3국은 (1) 막힘없는(seamless) 물류시스템 실현 (2) 환경친화적 물류 확립 (3) 물류보안 및 물류효율화간 조화 달성이라는 ‘한·중·일 물류협력의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과제를 추진한다.

제3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는 2009년 중국에서 개최된다. 3국 정부는 구체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급 회의도 개설한다.

3국은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공유된 결과를 반영하여 격년으로 발행하는 “물류협력에 관한 한·중·일 공동보고서”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가일층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3국은 물류 협력을 촉진시키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6 세관 분야 협력 증진

3국은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무역 촉진을 위한 통관 원활화 모델 도입, 입항지의 법집행 환경 개선,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세관능력 개발을 통하여 평등과 호혜에 입각한 세관 협력을 강화한다.

3국간 세관 협력 증진을 위해 2009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3국 관세청장회의에서는 중·장기 액션플랜을 작성한다.

2.7 3국 산업협력 협의체

3국은 2009년에 공동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 담당자로 구성된 3국간 연락체제의 설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2.8 금 융

3국은 재정부, 중앙은행 및 금융규제 기관을 포함한 유관 기관간 금융 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지역 금융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Ⅲ. 환경 보호 및 과학 · 기술 분야

3.1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출범을 위한 협력 강화

3국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출범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포함하여,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3국간 협력을 강화한다.

3.2 역내 공해감소에 관한 3국 환경 협력 강화

3국 환경장관회의(TEMM)의 틀 아래에서 3국은 황사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및 황사발생 방지·통제에 관한 공동연구를 통해 역내 공해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3국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협력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환경 교육 분야에의 협력을 강화한다.

3.3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하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해양 쓰레기 대처 협력 강화

3국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의 틀 안에서 “해양 쓰레기 퇴치 행동계획(RAP MALI)”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해양 쓰레기 방지를 위한 정책 대화와 공동 노력을 촉진한다.

3.4 철새 공동보호 및 모니터링

3국은 철새의 월경 이동경로에 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철새와 조류 독감(AI)간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철새 공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2009년 1월에는 3국 동의하에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겨울 철새 개체수 조사를 3국이 동시에 실시한다. 3국은 또한 야생 조류 고병원성 조류독감(HPAI) 모니터링 관련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

3.5 과학 · 기술 협력 증진

3국은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 “제2차 한·중·일 과학 기술 장관 회의”를 2009년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3.6 정보통신기술 협력 강화

3국은 현재 진행 중인 협력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정보통신 기술분야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세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로 한다.

VI. 사회·문화분야 : 보건·위생, 청소년 교류, 문화 등

4.1 해양 수색구조

3국 정부는 양자간 해양 수색구조(SAR) 협력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3국 해양 수색구조 협력의 증진 가능성을 모색한다.

4.2 보건협력 강화

제2차 한 · 중 · 일 3국 보건장관회의가 2008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

되었다. 동 회의 계기 서명된 공동 행동계획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3국은 동 행동 계획에 입각하여 정보 공유 등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3국은 여타 보건관련 의제로 협력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일본에서 개최될 제3차 한·중·일 3국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식품안전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기로 한다.

4.3 3자 협력 포럼

3국 외교안보 유관 학술 기관간 연례 협의체인 “3자 협력 포럼”을 활성화한다. 동 포럼의 목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의견 교환과 정책제언이다. 제2차 및 제3차 포럼은 2009년 중국, 2010년에는 일본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한다.

4.4 청소년 교류

“한·중·일 청소년 우호 만남” 행사가 2009년 한국, 2010년 중국에서 각각 개최된다.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 포럼”도 2009년 중국에서 개최된다

3국은 ‘3국 청소년 우대 카드(교통, 숙박, 문화시설 사용시 할인 혜택 제공)’사업의 실시 가능성 검토 등 3국 청소년 교류에 관한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논의하기 위해 “한·중·일 청소년 유관 부처간 협의체” 설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4.5 문화서틀 사업

현재의 3국 문화 교류 영역 확장을 위해, 전시, 공연, 영화 등의 문화 행사가 한·중·일 문화서틀 사업의 틀 안에서 3국의 참여하에 개최될 것이며, 이러한 문화행사는 3국 문화협력의 모멘텀을 유지시켜 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4.6 스포츠

스포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중·일 주니어 스포츠 교류를 지속시킨다. 3국은 경기 스포츠와 공공 스포츠, 스포츠 과학 및 의학 그리고 반 도핑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

4.7 관광

3국 관광 협력의 증진을 위해 3국 관광 부처간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간다.

3국은 문화, 청소년, 스포츠 관광, 3국 주요 관광지간 크루즈 노선 확대, 여타 지역 개최 관광박람회시 공동 홍보 추진 등 부산 선언에 포함된 분야에서 협력한다.

V.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5.1 기후변화 정책 대화

3국은 2009년 코펜하겐에서 있을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형평성있고 효과적인 Post-2012 국제 기후변화 체제를 달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포함하여, 국장급회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

5.2 3국 아프리카 정책 대화

3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평화와 발전을 돕기 위한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효과적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對 아프리카 대화와 협의를 강화하기로 한다.

3국 정부는 최근에 도쿄에서 시작된 한·중·일 對 아프리카 정책대화를 번갈아 개최한다.

5.3 아시아지역 협력

3국은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동아시아 협력 증진 그리고 동아시아 협력의 추동력으로서 아세안에 대한 지지를 다짐한다.

5.4. 6자회담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3국은 6자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3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기술된 6자회담의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다짐을 재확인한다.

3국은 6자회담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6자회담의 다른 관계 당사자들과 공조하기로 한다.

5.5 유엔 개혁

3국은 세계적 위기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 언급된 유엔 개혁 조기 실현을 위한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3국간 대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5.6 군축 및 비확산

3국은 세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뿐만 아니라 다자 군축 과정 촉진 및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다. 3국은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해 줄 것과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